

---

## “중남미, 멀지만 꼭 도전해야 할 시장. 금융사 자금지원 및 정책 뒷받침 절실”

-KOTRA 중남미 경제사절단 및 상담회 총 6억 4600만불 성과. 棼- 세일즈외교,  
계약에 큰 도움

---

“아직 멀고 낯설지만 꼭 도전해봐야 할 시장입니다.”

4일 서울 양재동의 코트라 사옥에 지난달 중남미 경제사절단 일정에 참여  
했던 중견기업인들이 모였다. 이들은 작게는 수만달러에서 크게는 1,5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돌아왔다.

KOTRA는 홍성민 에스에너지 대표와 탁예은 월드브리지산업 팀장, 이기현  
이퓨처 부사장, 김철빈 현대기계공업 대표, 이홍구 한글과 컴퓨터 대표를  
초청해 이날 ‘중남미 경제사절단 참가기업 좌담회’를 열었다. 윤원석  
KOTRA 정보통상본부장의 진행 아래 현지 방문의 성과와 계획, 전망 등을  
들어봤다.

참석자들은 대통령 방문기간에 맞춰 진행된 1:1 상담회가 현지 기업인들  
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었다는 데 동감을 표시했다.  
KOTRA가 지난달 말 브라질·칠레·페루·콜롬비아에서 개최한 1:1 비즈니스  
상담회에는 국내 76개 기업이 참여, 총 6억 4,600만달러 규모의 수출계약  
실적을 달성했다.

물론 아직 난관도 많다. 태양광 사업으로 이미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등  
해외 시장에서도 굳건한 기반을 가진 에스에너지의 홍성민 대표는 “예를  
들어 칠레에 발전소를 짓기 위해선 인허가 과정을 도와줄 정부지원, 자금  
조달을 맡아 줄 금융권 지원이 절실하다”며 “기업 혼자 힘으로는 해결하  
기 어려운 부분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철빈 대표는 우리와 다른 사업 관행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관세아 결제 부분에서 미리 정보를 챙겨야 하고, 사업 규모나 계획을 부  
풀리지 않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창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은 “원자재, WPWHDJQqnS만이 아니라 스마트그리드 등 에너지 신산업과 전자정부시스템 및 교통관제 시스템 등 한국형 정보통신기술(ICT)시스템을 전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